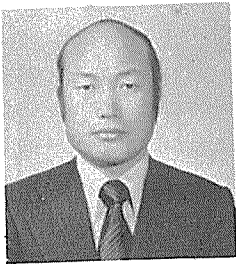


電子工業 研究開發 投資의 擴大 推進



金 惠 鎭
大韓電子工學會 會長

우리나라 電子工業은 他 산업에 비하여 歷史는 짧지만 過去 20여년간 괄목할 만한 急伸張을 거듭하여 왔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總輸出額 292億弗 중에서 電子工業 輸出이 46億弗이나 되었으며 금년에는 60億弗의 輸出목표를 세워 놓고 이 目標達成을 위하여 産·學·官 모두가 決然한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우리 電子工學會는 祖國光復과 더불어 創設되었으며 40年의 歷史를 걸어 오면서 우리나라에 電子工業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데 牽引車의 역할을 하여왔다.

그동안 産業界는 어려움 속에서도 學界의 微弱한 財政을 도아왔고 學界는 산업이 발전하도록 그들의 頭腦를 提供하는 産學協同을 잘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빛나는 成果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우리 電子工業이 先進國隊列에 끼이게 될 날을 목전에 두고 産·學은 또 한번 굳게 團結하여 先進國으로 가는 艱難의 마지막 障壁을 突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電子工業의 발전은 學界에 活力素를 불어 넣어 주었고, 學界의 活性化는 다시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Feedback作用을 하여 온 것이 事實이다.

우리 電子工學會는 금년에도 會員들이 研究室에서 또는 산업의 현장에서 技術革新을 위한 연구를 더욱 活性化하도록 研究氛圍氣를 助成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최근, 政府當局에서도 技術革新을 위한 研究事業에 대한 投資를 점점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先進國水準에 이르기까지 계속적

인 研究開發投資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앞으로의 研究投資는 長期, 中期 및 短期計劃으로 구분하여 基礎研究는 長·中期計劃으로, 開發 또는 簡單한 應用研究는 短期計劃으로 구분하여 병행하도록 選別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均等하게 一年間씩 研究課題를 선정하여 支給되는 研究費는 귀중한 國庫의 낭비를 招來할 뿐이다.

금년에도 夏季 및 秋季 綜合學術大會와 專門研究會別 學術發表會가 계획되어 있어 새롭고 다채로운 研究結果가 발표되고 討議될 것인데, 최근에 이르러 研究發表의 내용도 水準이 向上되고 있으며 論文數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금년에도 수준높은 論文들이 많이 發表될 것이다.

특히, 컴퓨터設計, 集積回路 光通信 분야 등은 先進諸國에 비하여 우리가 낙후되어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 尖端技術의 蓄積을 圖謀하기 위하여 專門家들을 招請하여 깊이 있는 技術講座를 開催할 예정이다.

우리 學會가 不遠間 會員數 萬名을 헤아리는 거대한 學會로 발전할 것에 待備하여 學會의 運營을 차츰 專門分野別 研究會中心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電子工學은 半導體, 컴퓨터, 通信, 計測制御 등 여러 분야로 세분될 수 있고 이들 분야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활동을 획일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學會는 작년에 각 研究會別로 專門委員會를 구성하였고 금년부터는 專門別活動을 더욱 활발히 展開할 것이다. 이렇

게 하므로써 會員들의 識見을 專門化하고 專門性을 深化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最高의 專門團體로 組織化 하므로써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權威있는 組織體가 되어 분야별 政策의 立案, 建議, 分析評價는 물론 學術的인 指導體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歲月이 흐름에 따라 우리 學會의 專門委員들의 數도 增加할 것이고 분야별로 가장 優秀한 專門人的 團體로 발전될 것이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政府當局에서도 산업별 國家의 政策樹立에 우리 專門團體의 意見을 많이 敬청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 學會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行事は 學術發表의 국제적인 진출을 圖謀하기 위하여 日本 등 Asia 모든 나라들과 國際學術發表會를 定期的으로 共同開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學術發表會를 電子工業이 발달한 몇몇 국가들이 相互交換 開催하므로써 技術者들의 相互 방문을 통하여 尖端技術의 활발한 交流를 圖謀함과 아울러 우리의 研究發表 수준도 더욱 向上될 것으로 기대된다.

數많은 計劃들 중에서 금년에 할 중요한 행사로는 通信事業 百周年을 맞는, 금년에 열리게 될 通信事業 百周年 紀念 國際심포지엄을 다른 關聯 學會와 공동으로 開催하여 電氣通信 事業의 작금의 發達과 앞으로의 展望을 論議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금년에는 오랜 宿願이던 電子通信用 語集의 편집을 착수하여 가급적 빠른 時日內에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日, 巨物IC브로커 廢業위기

지난 여름까지 계속된 半導體 부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던 일본의 거물급IC브로커가 廢業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이시가와(石川, 46세)라는 브로커는 한달 숙박료가 70만엔 가까운 일류호텔에 1년이상 묵으면서 IC를 중개해 온 「일본 제일의 IC브로커」로 알려진 사람인데 최근 LSI의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도 어려워지자 이젠 도모요니혼마시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연명하고 있다는 것.

지난 여름까지만해도 이 사람은 월간 7억~9억엔의 거래를 하여 어림잡아 1억엔의 수익

을 올렸다는 것. 작년 봄이후 일어난 IC부족에 편승하여 1개 30엔밖에 되지 않는 低集積 IC를 1천엔에 팔았을 정도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인데 요즘엔 메이커 계열의 특약점이 안고 있는 과잉재고를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난 가을부터 곤두박질하기 시작한 시세는 대표적 超 LSI인 64KD램이 개당 420엔(특약점 도매중심 가격은 500엔)정도, 次世代 IC인 256KD램은 개당 2,000엔(2850엔)에서 거래 된다는 것인데 최근 64KD램을 미국 마이크론社는 개당 1.40\$에 내놓고 있다고.

이 브로커는 공리끝에 값이 싼 IC로 퍼스컴을 제작, 對美 수출에 나서기 위해 轉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